

왕부지의 공간으로 中國인식과 주변 종족의 漢化*

이춘복

(중앙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연구교수)

■ Abstract ■

Wang Fuzhi's Chinese category as a space and Sinicization of Surrounding ethnics

Chun-bok, Lee

(Research Professor of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reviewed the spatial category of place name and detailed geographic features with terminologies such as frontier within(塞內), other frontier(塞外), Jiuzhou(九州, a poetic name for China), central districts(中區), and China(中國) used by Wang Fuzhi. Then, the study considered the recognition of China as a spatial category recognized by Wang, and his insistence regarding assimilation toward the Sinicization and edification policies for Yidi(夷狄) within the spatial Chinese category.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was confirmed that China served as an important scale for a China centric view as a space expressed as China(中國), China-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413-A00013).

centeredness(華夏), and Jiuzhou(a poetic name for China) to intellectuals of the Hanzu(漢族) beginning from the Han dynasty to the late Ming dynasty and early Qing dynasty. In reviewing roughly its spatial category, the border line of the north matches the Great Wall of China and the border line of the south may be proximate to Guangdong and Guangxi, while the border line of the west may be proximate to the western region of Shenzhisheng and Gansusheng.

Wang Fuzhi was confirmed to recognize the category of China as a space more clearly than anyone else in the previous period. In particular, it is the unique view of Wang Fuzhi that the concept of central districts used in “HuangShu(黃書)” mentioned terminologies such as central districts, Jiuzhou, frontier within, and China as well as geographic features such as regions, rivers, and mountains that become the border line of the east, west, south, and north in a concrete and detailed manner rather than mentioning the spatial category of China as in the migration theory by Jiang Tong(江統); and differences in custom and ethnics caused by difference in the spaces of Sinocentrism and Yidi were classified and described in accordance with the regions in the east, west, south, and north.

Meanwhile, it was confirmed that during the pre-Qin(先秦) period Wang Fuzhi had insisted on an engagement policy for the Yidi, who had resided as a space in China. In contrast, he expressed hostile and exclusive positions toward the surrounding ethnics in China after the Qin and Han times. The target subjected to this embracing policy was classified as Yidi during the pre-Qin period; however, after the pre-Qin period, it included ethnics who resided in the Chinese category as a space, namely Chibaidi(赤白狄), Huaiyi(淮夷), rongman(戎蠻), luhun(陸渾), Jiangrong(姜戎), and Daoyi(島夷) who appear during Qin(秦) and Chu(楚) as well as in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and ethnics involving Miaozi(苗族), and Yaozu(獯族). Wang Fuzhi asserted that these ethnics should be edified with Confucian school education such as shijing(classic of poetry), shujing(Book of Documents), lijing(Book of Rites), yuejing(The Classic of Music), and talented

people who are proficient in loyalty, chastity, literary works, and political affairs and may become assimilated to be Hanzu should be developed.

Keywords: Wang Fuzhi, migration theory, the Chinese category as a space, Ethnicity, Barbarians, Edification, Sinicization

[목 차]

1. 머리말
2. 明末이전 공간적 범주로서 中國에 대한 담론
3. 왕부지의 공간적 中國범주에 대한 인식
4. 공간적 중국범주 속 夷狄에 대한 教化 및 漢化
5. 맺음말

1. 머리말

최근 중국학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만리장성 확장 논리(NASH, 2012)¹⁾는 秦漢이후 전통시대 대부분의 한족문인이 주장했던 ‘華夷論’ 혹은 ‘中國’이라는 공간적 범위에 대한 인식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중국학계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근대적 영토주권과 역사 속에서 주권을 찾고자 하는 역사주권을 혼동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중국학계가 역사 속에서 만리장성의 확장 논거를 발견한다 해도 그 반대 논거 역시 상당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인식 아래, 중국의 역사 가운데 오늘날 중국학계의 주장과는 다른 ‘중국’이라는 공간적 범주에 대한 담론과 이를 계승 발전시킨 王夫之의 공간으로서의 중국인식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국내외 왕부지의 중화사상에 대한 연구성과는 상당량이 축적되어 있긴 하나 왕부지의 공간적 중국인식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편이다. 더욱이 이 주제에 대한 중국 대륙의 연구들은 왕부지의 논의를 협의적 중국인식으로 치부하며 오늘날 중국이 표방하는 ‘천하일가’의

1) 2012년 중국 국가문물국은 4년 반의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만리장성은 西端 감숙성 嘉峪關에서 東端 하북성 山海關까지라는 기존 학계의 정설을 뒤엎고, 장성의 길이를 동서로 두 배 이상을 확장해 현재 중국 북부 전 지역에 걸쳐 장성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이 발표되자 국내 학계에서는 중국의 만리장성 확장에 따른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한 토론회가 조직되었다.

통일적 인식과는 위배된다는 점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경향이 강하다(Xu, 1984).²⁾

본고의 주된 논의와 관련한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로는 한국의 우심화(Woo, 1999-b: 12-43; Woo, 1999-a: 148-213; Woo, 2004: 374-398)³⁾와 대만의 蕭敏如(Xiao, 2008: 193-232), 그리고 일본의 사이토 타다시(齊藤禎)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우심화의 연구는 왕부지가 『춘추』에서 언급한 용적을 유민으로 보았지 이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과 공간적으로 九州이내에 거주하는 용적을 모두 ‘中國之民’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Woo, 1999-a: 374, 193-232). 대만의 蕭敏如 연구 역시 우심화와의 연구와 같이 왕부지의 중화사상에 나타난 先秦시대의 夷狄와 明清시대의 夷狄의 공간적 범주가 서로 상이한 점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Xiao, 2008: 201-203). 그러나 이 두 연구는 공간적 범주로서 중국을 단독의 연구대상으로 상정한 것이 아니어서, 그 연구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시각을 분산시키고 있다는 점, 또한 왕부지의 공간적인 九州를 기준으로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였다면 고대 이래 논쟁의 대상인 九州라는 공간의 범위와 중국이라는 공간의 구체적인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또 그 경계선은 어

2) 徐泰來의 연구 외에, 대륙 학자들은 대부분 왕부지 화이관의 중심사상은 지리환경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연구로, 陳遠寧과 張堯年, 『中國古代政治觀的批評總論』, 湖南出版社, 1992년, 引言(5쪽), 序文(1쪽); 胡發貴, 「王夫之夷夏觀」, 『學海』(1997); 陳家鼎, 「王船山愛國主義思想論略」 『湘潭大學學報』(제1기, 1986, 88-91쪽); 彭大成, 「船山愛國主義的特點及其影響」, 『船山學報』(제2기, 1984, 64-68쪽); 李壽章, 「王船山的愛國主義思想探析」, 『華中師範大學學報』(제2기, 1994, 35-39쪽) 등이 있다. 대만의 연구로는 朱宏源, 蔣秋華, 朱榮貴 등, 「王夫之民族思想重觀」, 『哲學與文化』(20권 제9기, 1993); 朱榮貴, 「王夫之「民族主義」思想商榷」, 『中國文哲研究集刊』(1994, 529쪽) 등이 있다.

3) 우심화, 「清初抗清漢人的華夷觀研究-以王夫之、顧炎武、傅山爲中心」, 북경대학박사학위논문(1999). 우심화, 「왕부지의 華夷觀」, 『신학과 선교』(제3집, 1999); 우심화, 「試析王夫之的“華夷”觀」, 『明清論叢』(제5집, 2004). 1999년의 논문은 학위논문의 왕부지관련 편찬을 논문으로 제출한 것이고, 2004년 논문은 앞서 발표한 논문 대해 문구를 수정하여 학술지에 게재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2004년에 발표한 논문을 검토대상으로 삼았다.

는 시기부터 적용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한 분석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보완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찍이 왕부지가 인식한 공간상 중국범주의 개념도(概念圖)를 제시한 사이토의 분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Saitou, 1990: 160-166). 그는 왕부지의 중국공간에 대한 지식은 직접 견문한 것이 아니라 서적들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상이라기보다는 관념상의 개념도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필자 역시 왕부지의 중화인식과 移住문제에 대한 한족과 비한족의 이중 잣대에 대한 연구에서 왕부지의 공간범주에 대해 주목한 바 있다(Lee, 2013: 191-250). 하지만 필자의 연구는 공간적 범주로서의 중국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므로 비판의 소지가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사이토의 연구 역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왕부지가 인식하고 있는 공간상의 개념도와 구체적인 실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왕부지가 언급한 중국과 이적과의 경계선의 구체적인 지명과 지형에 대한 연구도 지나치게 소략하고, 공간적 중국 범주 속 夷狄에 대한 教化문제 역시 새로운 분석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우선 九州의 유래와 漢代 이래 중국의 공간적 범위, 그리고 명말청초 이전까지 문헌 자료에 드러나는 중국인들의 공간으로서의 중국 인식을 살펴보고, 더불어 왕부지가 塞內·塞外·九州·中區·中國 등의 용어로 사용한 중국의 공간적 범주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할 것이다. 덧붙여 공간상의 중국 안에 존재했다는 夷狄에 대한 한화정책을 논의할 것이다.

2. 明末이전 공간적 범주로서 中國에 대한 담론

중국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담론은 중국고대 華夷觀의 중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였다. 시대와 논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秦漢 이후 중국과 夷狄를 구분하는 대략적인 기준으로는 혈연·공간·문화·풍습 등 4가지 요소가 제시되었다. 이 가운데 華夷의 거주공간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九州·長城·沙漠 등의 요소가 거론되어 왔다.

먼저 九州라는 용어부터 살펴보자. 九州에 대한 논의는 4종의 선진시대 문헌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尙書』는 九州를 大禹시기에 규정된 지역구분으로 선언하고, 冀州(하북성), 兗州(산둥성), 青州(산둥성), 徐州(강소성), 楊州(강소성), 荊州(호북성), 豫州(하남성), 梁州(강소성) 雍州(섬서성)를 언급한다. 『爾雅』에서는 『상서』에 보이지 않는 幽州(북경일대)와 營州(요녕일대)가 포함시키고 있고, 青州와 梁州를 배제하고 있다. 『周禮』의 경우에는 幽州와 并州(산서성)가 포함되나 『상서』에 제시된 徐州와 梁州는 누락되어 있으며, 『呂氏春秋』는 幽州는 있으나 梁州는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九州에 대한 논의는 얼마간 상이한 점이 발견되기는 하난 先秦시대 제기된 九州라는 공간의 복단은 대체적으로 진한 이후의 만리장성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先秦시대는 九州라는 영역이 華夷를 구분하는 고정된 기준은 아닌 듯하다. 즉, 殷 이전에 中華는 황하 중하류 일대를 가리켰다면 춘추전국시대의 기록으로 여겨지는 『春秋左傳』과 『國語』에서는 齊, 魯, 晉, 鄭, 陳, 蔡 등 중원지역의 제후들을 中國·諸夏·華夏라 부르며 공간적 중국범주 안에 포함시켰고⁴⁾, 오늘날 사천성과 호남·호북성 일대에 활약했던 제후국인 秦과 楚는 ‘夷狄’으로 간주하여 배척하였다(Park, 2011: 440). 이와 같은 공간적인 內外구분은 秦漢 이후, 특히 진시황이 북방의 흉노를 방어하기 위해 만리장성을 구축한 것을 기점으로 華夷之辨의 공간적인 구분이 구체화되어간다.

선진시대 九州와 진시황의 만리장성을 기준으로 하여 華夷와 內外

4) 은대 甲骨文 등에 中華라는 용어가 있었는지, 있었다 해도 그것이 화이론에 적용가능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는 갑골문의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문헌자료에 나와있는 殷 이전을 가리킨다.

를 처음으로 구분한 것은 사마천의 『사기』에서 인듯하다. 『사기·흉노 열전』은 文帝가 흉노에 보낸 서한을 인용하면서 “장성이북의 활을 쏘는 나라는 單于의 命을 받고, 장성이내 의관속대를 하는 가옥들은 朕이 역시 통제하겠노라”라고 기술한 것을 보면, 한조가 만리장성의 이남을 자신들의 정치적 통치력이 미치는 경계선으로 파악했음을 짐작하게 한다(Sima, 2009: 1676). 반고의 『한서·서역전』 역시 “진시황이 戎狄를 물리쳐 퇴각시키고, 장성을 축성하여, 중국에 경계가 되었다(Ban, 1964: 3872)”라고 기술하여, 만리장성을 戎狄와 중국의 공간적 경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한서·흉노전』에서도 『춘추』의 공간적 구분을 기준으로 내외를 구분하고 있다.

이것이 『春秋』에서 ‘諸夏는 안에 있으나 夷狄는 밖에 있다’고 한 것이다. 夷狄의 사람들은 탐욕스럽고 利를 좋아하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오른쪽 衽을 왼쪽 衽 위에 여미는 옷을 입으며, 사람의 얼굴에 금수의 마음을 가졌다. 저들은 中國과 복장이 다르고, 습속이 상이하며, 음식이 다르고 언어가 통하지 않으며, 북쪽 끝에 차가운 이슬이 맺히는 들판에 피하여 거처하고, 초원을 따라 가축을 쫓으며, 활을 쏘아 사냥하는 것을 생업으로 하고 있다. **산과 계곡으로 격리되었고, 사막으로 막혀 있어, 천지가 내외로 끊어진 까닭이다**(Ban, 1964: 3834).

흉노와 중국의 성격·두발·복식·습속·음식·언어·생활양식 등이 다른 까닭이 산과 계곡, 그리고 사막으로 가로막혀 공간적(天地)으로 내외가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간을 기준으로 내외를 구분하는 것은 范曄의 『후한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하늘이 山河를 진열하였고, 秦이 長城을 축성하였으며, 漢이 塞垣(변방의 장벽)을 세워서, 내외를 구별하고, 殊俗이 다른 까닭이다”라 하여(Fan, 1964: 2992), 만리장성을 內外·中外·華夷를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범엽과 같은 시

대에 살았던 袁宏의 『後漢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Yuan, 1987: 641).⁵⁾ 이런 식의 중국에 대한 공간 구분 인식은 수당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된다. 예컨대 당대의 『通典』과 송대의 『通志』, 그리고 원대의 『文獻通考』 등은 『후한서』가 ‘하늘이 山河를 진열하다’라고 표현한 것과 달리 “하늘이 沙漠을 진열하다”라고 하여 용어를 변경하기는 하였지만, 만리장성과 사막을 中華와 四夷(혹은 四裔)를 구분 짓는 척도로 묘사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Du, 1982: 1679; Zheng, 1987: 3201; Ma: 368).⁶⁾ 또한, 송대에 출간된 『資治通鑑』, 『冊府元龜』, 『太平寰宇記』 등이 경우에는 『후한서』가 제시한 공간상의 구분을 글자하나 바꾸지 않고 원용하고 있다(Wang, 1860: 1622; Sima, 1976: 1842; Shi, 2007: 3692).⁷⁾ 요컨대 원대까지의 문헌자료는 만리장성 혹은 사막을 북방의 이적과 중화를 구분하는 공간적 경계선으로 삼는다는 데 이견이 없었던 것이다.

한편, 남방과 서방에 대한 공간적 구분은 어떤 식으로 제기되었을까? 이 방면에 대한 공간 구분 인식은 이민족의 침략으로 중국이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西晉시대 江統의 「徙戎論」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Wang, 2008: 161-168; Qu, 2005: 71; Wang, 2012: 9-11).⁸⁾ 강통은 『한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계를 가르는 典故로 “諸夏는 안에 있고, 夷狄이 밖에 있다”라는 『春秋』의 구

5) 袁宏의 『後漢紀』에는 “天設山河, 秦築長城, 漢起塞垣, 所以分別內外, 異殊風也”로 기록되었다. 『후한서』에서는 내외를 구분하라는 分자를 쓰고 있지만, 『후한기』에서는 이 대신에 分別이라는 동사로 바꾼 것 외에는 똑같이 기술하고 있다.

6) 唐代 두우 이외에, 송대 鄭樵의 『通志·四夷傳』 卷200, 元代的 馬端臨, 『文獻通考·四裔』 卷342 등에서는 『후한서』의 ‘山河’를 ‘邊防’, ‘四夷’, ‘四裔’의 항목에서 ‘沙漠’이란 단어로만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즉, “天設沙漠, 秦築長城, 漢起塞垣, 所以別內外, 異殊風也”

7) 송대 王欽若의 『冊府元龜』 券989(外臣部), 司馬光의 자치통감 『自治通鑑』 券57(漢紀 49), 樂史의 『太平寰宇記』 券193(四夷22, 北狄5) 등에서 『후한서』에 언설을 ‘外臣’, ‘北狄’ 등의 항목에서 동어반복으로 원용하고 있다.

8) 江統의 徙戎論에 대한 대륙에서의 연구성과는 비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륙학자들은 江統이 중국 주변의 소수민족을 배척하여, 이들을 변방 밖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은 大一統사상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필자는 강통의 徙戎論은 정복 왕조의 입장과는 차이는 있지만 『漢書』 이후의 대부분의 역사 문헌자료와 한족문인들의 입장과 별 차이가 없다고 입장이다.

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인식에 입각하여 諸夏와 夷狄 사이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고, 통화(贄幣)가 다르며, 法俗이 어긋나고 다르며, 종족의 부류가 어긋나고 다릅니다…… 중국의 토양과 격리되어, 서로 침략하고 干涉하지 않았고, 賦役이 미치지 않았으며, 正朔이 더해지지 않았습니(Fang, 1974: 1529)”라고 분석하고 있다. 즉 공간상의 격리 때문에 언어·통화·法俗·種類(혈통)이 다르고, 서로 침략도 간섭도 없었으며, 부역과 정삭의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반고의 논리와 거의 흡사하다. 강통의 논의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진시황에 대한 시각이다.

진시황은 천하를 겸병하고, 남으로 百越을 겸병하였으며, 북으로 흉노를 도망치게 하여, 五嶺과 장성에 戍卒들이 億을 헤아렸습니다. 비록 군사와 부역이 번거롭고, 寇賊이 橫으로 포악하게 하였으나 일세의 功은 戍虜들을 퇴각시켜 도망가게 하여 당시 중국에는 더 이상 四夷가 없게 되었습니다(Fang, 1974: 1530).

간단히 말해 진시황으로 인해 공간적인 중국의 범주가 온전해졌다 는 것이다. 특히 강통이 북방의 만리장성이라는 경계선 외에 남방의 경계선으로 五嶺을 언급한 부분은 흥미롭다. 五嶺이란 大庾嶺·越城嶺·騎田嶺·盟渚嶺·都龐嶺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늘날 강서성·호남성·광둥성·광서성을 포함하고 있어, 모호하긴 하지만 그가 생각했던 공간적 중국의 남방 경계선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강통은 북방과 남방의 공간상 경계선뿐만 아니라 서쪽의 경계선도 대략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인식은 羌族·氐族과 후한 왕조의 관계에 대한 그의 기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통은 후한시대에 서쪽의 강족이 중국의 화근이 된 원인을 광무제가 建武연간에 강족을 토벌하고, 남은 종족들을 關中지역에 끌어들여 華人들과 잡거하게 된 것에서 찾고 있다. 이후 강족의 침략과 약탈이 나타났고, 이에 대한

後漢의 정벌과 방어가 있었지만 그 불씨는 소멸되지 않아 그 폐해가 강통이 살던 西晉시대에까지 미쳤다고 그는 분석하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강족과 저족을 그들이 본래 거주하던 땅으로 이주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군사의 위엄을 강성하게 하고, 많은 일은 철폐하지 말아야 하며, 馮翊(섬서성 대치현, 이하 인용문예 ()는 필자 주), 北地(섬서성 탁현), 新平(섬서성 빈현), 安定(감숙성 진원현)의 경계선 안에 있는 여러 강족들을 이주시켜, 先零(감숙성 청해 황수구역), 罕开(감숙성 하현의 동북쪽), 析支(감숙성 積石山이 있는 귀덕현)의 땅에 정착시켜야 합니다. 扶風(섬서성 경양현 서북쪽), 始平(섬서성 함안시), 京兆(서안시)의 저족들은 이주시켜, 국경을 넘어 隴右(감숙성 서쪽, 황하 동쪽)로 돌려보내서, 陰平(감숙성 문현), 武都(감숙성 성현)의 경계 지역에 정착시켜야 합니다(Fang, 1974: 1529).

즉, 강통은 馮翊·北地·新平·安定을 중국의 공간적 경계선 안으로 판단하고 있고, 강족들을 이주시킬 장소인 先零·罕开·析支 등의 지역은 강족의 강역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扶風·始平·京兆 등의 지역은 중국의 경계선 이내로, 隴右·陰平·武都 등의 지역은 氏族의 강토로 판단하고 있다. 이상 한대에서 송대에 이르는 일련의 역사문헌자료와 강통이 중국의 강역으로 묘사한 中國·華夏·九州의 공간범주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북쪽의 경계선은 만리장성과 일치하고, 남쪽의 경계선은 광둥성과 광서성, 서쪽의 경계선은 섬서성과 감숙성의 경계와 근접하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화와 夷狄를 공간상으로 엄격히 구분하는 인식은 명대에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명태조 주원장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중화와 이적 사이에 차이가 없다(華夷無間)’라거나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한다(一視同仁)’, 혹은 ‘몽고와 색목인들은 모두 나의 백성이다(蒙古諸色人等皆吾赤子)’라고 하여 중화와 이적을 동등하게 보는

듯한 언급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언설은 주변종족을 회유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MTSR). 기실 주원장은 “자고로 帝王들이 천하에 臨御한 이래로, 중국은 안에 거주하면서 夷狄을 통제하고, 夷狄은 밖에 거주하면서 중국을 섬겼지, 夷狄이 중국에 거주하면서 천하를 다스렸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하였다”⁹⁾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인식은 명대이전 중국과 夷狄을 공간적으로 구분하는 전통적인 논의와 별다른 차이는 없다. 이러한 인식 아래 그는 唐代 복장을 회복하고, 몽고족의 복식·언어 및 몽고족의 성씨 사용을 금지하는 등 중화와 夷狄을 엄격히 구분하는 일련의 한족중심 배타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공간상의 화이구분은 명말청초 시기까지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명의 遺臣인 黃宗羲는 중국과 이적을 내외로 구분하면서 “중국이 중국을 다스리고, 이적이 이적을 다스리는 것은 마치 사람이 짐승에게 섞일 수 없는 것이며, 짐승이 사람에게 섞일 수 없는 것과 같다”라며 청 왕조를 인정하지 않았다(Huang, HZQJ, 1985: 12).¹⁰⁾

3. 왕부지의 공간적 중국범주에 대한 인식

앞서 강통의 사례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간상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이민족의 중국 침략 시기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명청 교체기의 대표적 사상가 중 하나인 왕부지는 만주족이 한족의 강산을 정복하는

9) 명대 『皇明詔令』 券1(明嘉靖18年刻浙江布政司增修本)에 “自古帝王臨御天下, 中國居內以制夷狄, 夷狄居外以奉中國, 未聞以夷狄居中國治天下者也.”라고 기록되어 있다.

10) 명말청초 황중희는 청조 입관 전후에는 강력한 화이관에 기반을 둔 반청의식을 보이고 있으나, 그 후 청조의 체제에 대한 정면 비판은 점차 약화되었다. 황중희의 반청사상의 변화에 대한 연구로는, 趙連穩(2006), 「論黃宗羲反清思想的演變」(『河北大學學報』 第4期, 32-36쪽); 조영록(1992), 「新發見 黃宗羲著作 二種과 그 民族思想 문제」, 『동양사연구』 제29집, 145-156쪽 등 참조.

격동기를 지내면서 중국이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을 가장 선명하게 표출했던 인물이다.

왕부지는 화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혈연·공간·습관·문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는 출발점이자 근간이 되는 기준점으로 공간상의 차이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夷狄과 華夏는 태어난 곳이 다른 地이고, 그 地가 다르면, 그 氣가 다르다. 그 氣가 다르면 습속이 다르고, 습속이 다르면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다르지 않은 바가 없다. 그 가운데 또한 그들의 貴賤이 있고, 특히 地界가 구분되고, 天氣가 다르게 되면, 혼란스럽지 않게 된다(Wang, DTJL, 2011: 502).

이와 같이 왕부지는 중화와 夷狄을 구분하는 출발점으로 地와 地界 즉 공간적 구분을 제시하고 있고, 기운·습속·지식 및 행동양식 등이 지역적 경계에 의해 파생되었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그는 이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 역시 공간적 환경에 지배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 族을 깨끗하게 하고, 그 畛을 단절하며, 그들의 位를 세워서, 그들의 각기 그들의 병풍(경계선)이 되게 하는 것에 귀결된다. 그런즉 산 짐승은 발가락이 성글고, 연못 짐승은 발가락이 덮여 있고, 날 짐승은 힘이 세로지르고, 경작하는 짐승은 힘이 가로지른다. 물로 경작하는 것은 남쪽이 적당하고, 흰 가루 농사는 북쪽이 적당하다. 이것은 그들을 녹여서 흩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大宗을 나누게 하려 한 것이고, 또한 勢를 서로 구할 수 없어서 그들의 禍를 끊어 놓은 것이다. 이런 까닭에 聖인이 사물을 살핀은 모두 그러하여 그 族類을 스스로 구분하고, 천하를 주관하여 그들의 君長이 되는 것이다(Wang, HS, 2011: 501).

짐승들도 그들이 살아가는 공간적 환경(산과 물 등)에 따라 각자 적응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의 種族도 공간적 경계에 따라 구분하여, 大宗(혈연)을 나누고, 서로의 禍를 단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성인들도 그 족류를 구분하는 것으로 천하를 주관하고, 천하의 군장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왕부지가 地, 地界 혹은 畛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중화와 이적의 공간적 구분은 무엇을 의미할까? 왕부지는 塞外·塞內·九州·中國·中區라는 용어를 재료로 중화와 夷狄의 공간적 범주를 구분해 기술하는데, 일단 그가 언급하는 위 용어들을 차례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왕부지는 塞外를 구주 밖으로, 塞內는 구주 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은 그가 말하는 九州의 범위부터 살펴보자. 華夏와 夷狄을 구분하는 구주의 안과 밖의 차이점을 王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沙漠 이북과 황하, 洮河의 서쪽, 日南(베트남 변경)의 남쪽, 그리고 遼海의 동쪽 등은 하늘이 다른 氣가 있고, 땅은 다른 理가 있으며, 사람은 다른 기질이 있고, 물산은 다른 생산이 있다. 각기 그들이 태어난 곳에 자라고, 그들의 君長을 君長으로 삼고, 그들의 部落을 部落으로 하여, 저들이 우리를 침략하지 않고, 우리가 저들에게 염려되지 않으며, 각기 그들의 강기에 편안하나 서로 업신여기지 않을 뿐이다…… 中夏가 夷를 다스려야 하나, 九州의 밖에서 실행할 수 없는 것은 天(하늘의 뜻)이다. 그것이 九州 이내에서 실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人(사람의 뜻)이다(Wang, SL, 2011: 174-175).

왕부지는 여기에서 中夏와 구분되는 夷狄들이 거주하는 구주 밖의 공간을, 북으로는 沙漠 즉 만리장성 이북, 서로는 洮河 즉 감숙성의 서쪽, 남으로는 日南 즉 베트남 변경, 동으로는 遼海, 즉 遼水의 동쪽으로 보고 있다. 이상의 사방의 공간적 경계선을 기준으로 天氣와 지역의 이치는 물론이고, 기질·물산·통치방식이 다르다고 말한다. 왕부지가 구주를 경계로 중화와 夷狄을 구분한 것은 한대 이후 이민족의

침략과 이민족의 중국내 이주를 비판하는 『讀通鑑論』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고조가 豊, 沛縣에서 일어나, 이로서 楚가 天下를 결정한 것이니, 天氣가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사람에게는 封建에서 郡縣으로 바뀌었고, 하늘(하늘의 기운)은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였으니 하늘과 사람이 부합하는 운수이다. 천기가 남쪽으로 이동하자, 흉노가 강성해지기 시작하였고, 점차 幽州·并州·冀州·雍州의 地氣를 서로 얻었다(Wang, DTJL, 2011: 454).

왕부지가 여기에서 秦漢 이래 흉노가 강성해져 중국의 地氣를 얻게 된(즉 침략) 곳이라 거론한 幽州·并州·冀州·雍州는, 오늘날 북경·산서·하북·섬서 일대로 만리장성 접경한 바로 남쪽의 지역들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할 수 있다. 위진남북조시기 鮮卑族이 九州 가운데 기주·병주·옹주를 침략하여, 이들 지역이 ‘이적의 숲이 되었다(Wang, DTJL, 2011: 644)’고 한 것에서도 왕부지가 말하는 구주는 북경·산서·하북·섬서 등과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왕부지가 말하는 九州 이내는 塞內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그가 후한시기 “남선우가 漢에 투항하니, 광무제는 황하 서쪽의 塞內에 두었다”라고 한 새내(Wang, DTJL, 2011: 271)와, “한과 위의 교체기에 羌族과 胡族, 鮮卑族이 塞內에 섞여 살게 되어 백성들의 근심이 되었다(Wang, DTJL, 2011: 431)”라는 구절에서 언급한 새내, 오대십국 시기 후진의 石敬瑭이 거란을 새내로 끌어들여 燕雲 16州를 점거하게 하였다(Wang, DTJL, 2011: 1164)고 했을 때 말한 塞內는 모두 공간상 九州 이내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다. 왕부지는 거란이 새내에 난입하여 16州를 점거한 것을 몰아내고, 禹甸을 회복해야만 천하의 군주가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Wang, DTJL, 2011: 1165), 여기에서 새내는 禹甸을 의미한다. 우전은 禹왕이 개척한 九州를 의미하는 것으로 새내란 곧 ‘구주내’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왕부지가 사용하고 있는 塞

內와 九州의 북단은 북경·산서·하북·섬서 일대와 연운 16주를 포함하는 만리장성 이내를 지칭하고, 서단은 황하의 서쪽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왕부지가 말한 새내와 구주가 중국의 강역을 나타내고 있지만, 구체적인 공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라는 공간적 범주를 지형과 지명을 거론하며 가장 구체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은 왕부지가 독창적으로 사용한 中區라는 용어이다. 中區라는 표현은 그의 『黃書』에서 중국이라는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黃書』의 「離合」편에서, 그는 中區의 동서남북의 공간적 경계선을 구획하고 있다. 우선 왕부지는 中區의 북쪽 경계선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中區의 안쪽은, 軒轅이 통치한 곳이고, 大禹가 經緯한 곳으로, 句注(雁門山の 서쪽지역)의 서쪽에서 시작하여, 石梯(산서성 神曲縣 남쪽) 지역을 비스듬히 경유하였으며, 황하를 구획하였고, 동으로 白登(山西성 대동의 동쪽 산명)을 넘어, 桑乾(하북성 서북부와 산서성 북부의 하천)이 막고 있으며, 중첩된 산이 겹겹이 산봉오리를 이루며, 野狐(하북성 만천)와 居庸(장성과 북경시 창평구 居庸關)을 두 날개의 요새로 하는 경계선으로 삼아. 極東에 渝關(山海關)에 다하여, 海陽(진황도 海陽區)를 의지하고 있다. 그 외곽은 어지러운 산골과 거친 들판으로, 풍부한 초원과 큰 호수가 있고, 일찍 얼음이 얼고 혹한이 있어, 털가죽 옷을 입고 낙타우유를 먹는 고향이며, 괴이한 모양과 기이한 嗜好로, 北維에 이르러 그치게 된다(Wang, HS, 2011: 532-533).

왕부지는 북쪽의 서단으로 句注를 지목하고 있는데, 이곳은 雁門山 서쪽지역으로 송대에 북방 유목민족을 방어한 군사적 요충지이고, 명대에는 만리장성의 서단이었던 雁門關이 있던 지점이다. 그 동쪽으로 大同을 넘어서면 桑乾하천이 가로막고, 다시 하천 동쪽으로는 첩첩한 산들과 산봉오리가 하북성의 張家口 이남의 野狐嶺 장성과 군사요충

지인 居庸關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만리장성의 동단인 山海關까지 이어졌다고 왕부지는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왕부지가 묘사한 북방의 경계선은 명나라 때 개·보수한 만리장성과 그 안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다음은 왕부지가 中區의 서쪽 경계선으로 규정한 내용이다.

서쪽으로 黃甫川에서부터 奢延(오늘날 無定河)이 가로막고, 鹽池(감숙성 高臺縣)을 넘어, 南河(섬서성 白水)를 건너면, 賀蘭山(영하성 하란산), 燕支山, 車箱山, 雪山(곤륜산 자락)의 요새가 있다. 서쪽의 끝에 淸海(청해성 동북에 있는 청해호)와 黑水(감숙성 康樂縣을 흐르는 하천)에 다다르고, 역류하여 남으로 내려가, 湟水와 洮河에 흐르게 된다. 그 바깥쪽은 平沙와 朔野하고, 가로로 부는 피리 소리가 萬里에 들리며, 그 사이에 西戎이 있다. 積石山(감숙성 臨夏 회족자치구, 일명 阿尼瑪卿山이라고도 불림, 평균 해발고도 2,300미터)이남에, 西傾山(청해성 몽고자치구), 烏隴(감숙성 定西 남쪽), 太白山(감숙성 慶陽 북쪽), 岷山(사천성 松潘縣), 嶓冢(감숙성 成縣), 巖道(사천성 성도 서쪽 榮經縣), 越巂(사천성 서남부 彝族自治州), 峨(峨媚山, 사천성 樂山市 서쪽), 岷(岷山, 사천성 岷山市) 등 등골뼈의 산맥과 산봉우리를 경유하여, 깎아 지르는 산들이 세차게 내달리고 있다. 이 안쪽에는 羌·沔·大江·若·洙의 지류가 흐르고, 중국으로 기울어져 적시고 있다. 그 외부는 훔날리는 모래가 끈을 매달아 놓은 듯하고, 붉은 토양이 머리를 아프게 하며, 쌓여있는 눈들이 여름에도 그 들판을 날리고, 푸른 눈과 검은 얼굴, 자른 머리와 귀고리 장식을 하는 풍속을警戒한다(Wang, HS, 2011: 533).

왕부지는 서쪽의 북단으로 섬서성 榆林市에 있는 黃甫川堡를 지목하고 있다. 이 황포천보에서 榆林지역에 최대 하천이자 황하의 지류인 無定河가 가로막고 있는데, 이곳으로부터 鹽池, 白水를 건너서 賀蘭山에 이른다는 기술은, 섬서성의 靖邊, 定邊, 安邊 등 동서로 125km나 이어지는 만리장성의 서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듯하다. 그 동쪽으

로는 하란산과 車箱山, 雪山 등 곤륜산 자락의 험난한 요새들이 이어지고, 서쪽 끝에는 淸海湖와 黑水河에 다다른다. 왕부지에 따르면 흑수하에서 역류해서 남쪽으로 내려가 황하 최대의 지류인 湟水와 감숙성의 삼대 하천인 洮河에 흘러 들어가는 지역이 바로 서북쪽의 경계선이다. 또한, 왕부지는 湟水와 洮河 남쪽에 있는 積石山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남의 西傾山, 烏隴, 太白山, 岷山, 嶓冢, 嚴道, 越巂, 峨媚山, 邛峽山 등을 열거하면서,¹¹⁾ 이들은 산맥과 산봉오리 및 험준한 산 등 자연지형에 의해 중국과 서쪽의 이민족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왕부지가 구분하고 있는 中區의 남서쪽과 남쪽의 경계선이다.

滇詔(운남성 남소)의 서쪽, 金沙(금사강: 운남성 서부에서 남북으로 흐르는 양자강 상류), 潞江(금사강 서쪽에서 남북으로 흘러 미얀마 북쪽으로 흐르는 강), 麓川(운남성 남부 隴川縣, 德宏傣族·景頗族 자치주)의 하천이 양의 창자처럼 굽어져, 남으로 嶧(운남 玉溪市 남쪽 峨山彝족 자치현), 岷(岷山)의 요새를 단단하게 보호하고, 特磨(운남성 廣南縣)에 흘러들어, 交趾(베트남의 경계)를 경계선으로 하면서, 그물처럼 廣右에 이어진다. 그 남쪽에 邕部(광서성 邕州: 지금의 南寧市), 百粵(광둥성), 鐵圍(광서성 동남쪽 玉林市 鐵圍山), 鬼門(광서성 北流縣) 등에서는, 狼夷 등이 수염을 높이고 등나무 샷갓을 쓰는 종족이고, 동쪽으로 두루 미치어 海濱에 다다랐다(Wang, HS, 2011: 533).

왕부지는 남서쪽의 경계선으로 운남성의 남소를 지목하고 있고, 그 경계선으로 金沙江, 潞江, 麓川 등 여러 하천들이 남북으로 굽어져 이어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들 하천이 그 남쪽의 嶧峨와 岷山의 요새를 견고하게 보호하면서, 운남성의 廣南에 흘러들어가, 남쪽의

11) 왕부지가 『黃書』에서 지역과 방위를 나타내는 경우, 오늘날의 지명에서 그 일치하는 곳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왕부지가 감숙성 돈황현 남쪽에 있는 三危山을 積石山 이남에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은 王의 오류인 듯하다.

베트남과 경계를 지으면서 廣西에 이른다고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中區 동쪽의 경계선으로 왕부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渝關 이남은 거대하게 물이 베어들어 떠있거나 끊어져 있고, 끊어올라 용솨음치어다가 정지되어 머무르고 있다. 남쪽으로는 流榆(산동성 流河), 之罘(산동성 煙臺市), 瑯琊(산동성 淸島市), 海門(강소성 海門市), 三江(절강성 臺州市), 舟山(절강성 舟山市), 雁蕩(절강성 溫州市 雁蕩山), 霍童(복건성 寧德의 霍童山), 紫帽(복건성 南安市 紫帽山), 甲子之門(광동성 陸豐市 石帆 해안), 羅浮(광동성 海州市 羅浮山), 七星(광동성 광주 북쪽) 등 지역을 경과하고, 남쪽의 바늘이 崖(광동성 海南市 崖縣), 礪(광동성 홍콩의 大奚山)을 지나 서쪽으로 향하면 合浦(광동성 合浦)와 만나고, 日南(베트남 변경)을 경계선이 된다(Wang, HS, 2011: 533).

위의 인용문에서 왕부지가 나열하고 있는 지역은 북으로 山海關에서부터 合浦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중국의 동쪽 연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왕부지는 중국의 동쪽 경계선으로, 그 북단을 산해관으로, 남단을 合浦와 日南의 중간지대로, 서단을 동해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왕부지가 이와 같이 中區라는 용어로 동서남북의 공간적 경계선을 구분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九州·塞內라는 용어로 중국의 범위를 규정했던 것과 거의 유사하다 할 것이다. 다만, 『황서』에서 등장한 中區라는 개념은 九州·塞內·中國이라는 용어나 강통이 徙戎論에서 묘사한 것 보다 동서남북의 경계선이 되는 지형지물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거론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중화와 이적의 공간상의 차이점으로 파생되는 풍속과 종족 등의 차이점을 동서남북의 각각의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기술한다는 점 역시 앞의 두 책이나 한대 이후 다른 문헌자료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다. 예컨대 왕부지는 만리장성을 경계로 그 북쪽은 중국의 종족과

다른 유목민족(즉 北狄)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이들은 자연환경·기후·음식·풍습이 중국과는 다른 종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섬서성의 삼변(靖邊, 定邊, 安邊)에서 賀蘭山을 잇는 만리장성 서북쪽의 외곽을 모래 개펄과 황량한 들판이 펼쳐진 척박한 땅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종족을 西戎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감숙성의 積石山이남에서 감숙성과 사천성에 이르는 해발고도 3,000미터 이상의 고원지대와 산봉우리를 경계선으로 한 서쪽지대 역시 지형·토양·체형·자연환경·풍속 등이 中區와는 서로 다르다고 파악하고 있다. 남쪽의 경우에는 운남성·광서성·광동성의 남쪽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남부는 중국의 풍속과 다른 狼夷가 거주하며, 이들이 중국의 남해에까지 이르렀다고 왕부지는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왕부지는 동서남북의 공간적인 차이에 따라 파생된 혈연(種類)·자연환경(모래 개펄, 황량한 들판, 붉은 토양, 모래사막)·기후(한여름에 눈)·음식(가죽옷과 낙타우유)·체형(푸른 눈, 검은 얼굴)·풍속(수염이나 귀고리) 등의 요인들도 다르게 되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4. 공간적 중국범주 속 夷狄에 대한 教化 및 漢化

필자가 기존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왕부지는 塞內, 九州, 中區의 외곽에 살았던 夷狄 집단에 대해서는 문화융합이나 포용정책을 배격하는 극단적이라 할 만큼의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Lee, 2013: 224-240). 그러나 그가 배척하고 부정하는 夷狄은 秦 이후의 戎狄에 대한 것이지, 先秦시대의 夷狄집단에 대해서는 중국 중심의 教化와 漢化를 주장하고 있다.

왕부지는 중국인에 의해 통치해야 할 구역은 그가 앞에서 塞內·九州·中區·中國 이라고 한 중국범주 이내이지, 이 공간의 외곽은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그는 『春秋家說』에서 이렇게 말한다.

왕자는 夷狄을 다스리지 않는다. 다스리지 않으면 다스림은 없다. 다스림이 없으면 비록 부모와 군주를 죽여도, 그야말로 다스리지 않는다……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은 요황(要服과 荒服 지역)의 밖을 말함이다. 소리가 서로 알려지지 않고, 자취가 서로 미치지 않아 그들의 흥성과 그들의 喪을 우리는 알 바가 아니다. 주나라는 땅을 분할하여 楚를 봉하고, 服을 내려 楚에 작위를 주어, 楚와 중국은 진실로 더불어서 盟會와 朝覲을 묻는 일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다스리지 않는다는 말은 한대의 목특(홍노)이나 송대의 完顏雍(금 세종)이 그것이지 **楚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Wang, CQJS, 2011: 202-203).

그는 『春秋世論』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왕자가 夷狄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은 다스림이 없다는 것이다. 代(산서성 장성 雁門關)의 북쪽, 粵(광둥)의 남쪽, 바다의 동쪽(遼海), 磧(사막)의 서쪽은 다스리지 않는 곳이다(Wang, CQSL, 2011: 390).¹²⁾

다시 말해 왕부지는 만리장성 북쪽, 광둥성 남쪽, 동해의 동쪽, 사막의 서쪽에 있는 夷狄은 통치도 유교원리의 적용여부도 관여할 바가 아닌 외부의 공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왕부지는 중국의 통치력이 미치는 행정구역을 『黃書』의 「宰制」편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그가 구상하는 행정구역은 하북·산둥·강북·제남, 하남·荊北, 燕南·하동, 開陝·秦隴(사천 일대), 荊南·江右, 江南·福·浙江(복건, 절강 일대), 巴西·瀘南(사천), 南贛·嶺海(강서), 嶺西·桂·象(광서 일대), 滇·黔·洱海(귀주, 운남 일대), 畿輔(북경 일대), 左輔, 右輔, 大同(산서), 延綏(섬서), 寧夏(Wang, HS, 2011: 509-510) 등 18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밖에 ‘복건과 광둥의 해변’을 中區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있다(Wang, HS, 2011: 517, 518). 왕부지가 말한 中區내의

12) 이와 같은 논리는 『讀通鑑論』(『讀通鑑論』 권26, 992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간적 범주는 앞서 살펴본 중국의 경계선이내의 모든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즉 북쪽으로 만리장성 이남의 전 지역을 포함하고, 동쪽으로 광둥·북건·절강·산둥·하북의 동쪽인 연해의 안쪽지역을 가리키며, 서쪽은 사천·섬서·귀주·운남·섬서의 동쪽 전역을 포함하며, 남쪽으로는 광서·광둥을 포함한 내지와 일치한다 할 것이다.

한편 楚에 대한 언급에서 볼 수 있듯이, 왕부지가 주창한 華夷론의 특징은 공간상의 구분과 더불어 先秦시대와 秦漢 이후라는 시간적인 구분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타나난다. 이는 秦漢이후 이적들에 대해 배타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독통감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춘추』에 쓰여 있는 戎狄는 모두 塞外 황무지에서 멀리 활을 들고 고기를 먹는 족속이 아니다(Wang, DTJL, 2011: 436)”라하여, 先秦시대 작품의 용적은 공간적 중국범주 밖에 있는 塞外の 족속과는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그는 『春秋稗疏』에서도 (『춘추』에 등장하는) “戎狄는 모두 塞外の 胡虜, 즉 秦漢이래로 중국의 근심이 되었던 자(호로)들이 아니다(Wang, CQBS, 2011: 41)”라 하여, 秦漢이전과 秦漢이후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왕부지는 先秦 시대의 용적과 秦漢 이후의 용적을 시간적으로 구분하여 先秦시대의 용적은 中區·中國·九州의 內 혹은 塞內에 있는 夷狄들이고, 秦漢이후의 戎狄들은 中國 밖, 中區 밖, 塞外에 거주하는 이적들이라하며 이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왕부지는 선진시대 등장하는 용적과 夷狄들은 ‘만세의 이적’ 혹은 ‘진한 이후 중국의 근심’거리가 되었던 진정한 夷狄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Saitou, 1990: 164).¹³⁾

왕부지는 이들 先秦시대 夷狄들, 즉 공간으로서의 중국 내에 거주

13) 사이토는 왕부지가 중국 범주 속의 이적에 대해 배척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王이 秦漢 이후의 중국 범주 내에 이주 혹은 침략한 종족들에 대한 배척과 비판에 대한 분석은 진행하고 있지 않다. 사실 왕부지는 秦漢 이후 출현한 이적들이 공간적 중국내에 이주하거나 이적에 대한 문화융합 및 조공책봉에 대해 배척·부정하는 극단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 先秦시대에 출현한 夷狄들이 공간적 중국내에 거주자들에 대해서는 포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고 있는 종족들에 대해서는 그가 말하는 中區 외곽의 夷狄과는 달리 포용정책을 취할 것을 주장한다. 간단히 말해 先秦시대 공간적 중국 내에 이주·정착한 이적들은 중국의 행정구역에 포함된 통치대상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독통감론』에서 이렇게 말한다.

『춘추』에서 기록한 戎狄은 모두 塞外 황무지의 멀리에서 활을 들고 고기를 먹는 족속이 아니라. 그들이 중국의 산림과 계곡에 분포되어 이동이 고정되지 않아, 후세에 流民이 되고, 산의 도적이 되니 모두 이들이다. 澤潞(산서성 潞城市)이동, 井陘(하북성 石家莊市)이남, 太行(태행산)과 王屋(산동 濟源市)에 끼어 있는 곳에 赤白狄이 있다. 淮河의 늪에 끼어 있는 淮夷(장강과 淮河일대 종족). 商, 雒, 淝, 鄆, 房, 均 등 戎蠻(하남성)과 陸渾(하남성 낙양시)이 있다. 夔(사천), 巫, 施, 黔(귀주), 濮人(장강 지류 漢水이남 彝族)이 있다. 漢川(호북성 중부), 秦, 鞏(사천성)에 姜戎(감숙성 서쪽)이 있다; 潛(절강), 霍(산서), 英, 六, 光, 黃, 隨, 均에, 群舒(안회성일대 종족)이 있다; 宣(안휘), 歙(안휘), 嚴(절강), 處(절강)에, 島夷(중국 동해 근해 섬)가 있다.

그 후(秦漢 이후, 이들 지역은) 郡縣으로 둘러싸고, 羈縻를 실시하여 그들을 版圖의 나머지에 붙게 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땅보다 넘치면, 거기에 거처하지 못하였다. 땅이 사람들보다 넘치면 이로 인해 다스려지지 않았다. 마침내 경작과 직물에 힘쓰지 않았고, 고정된 사업이 없어 流民이 되어, 수천년이 이어져 그치지 않았다(Wang, DTJL, 2011: 436~437).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왕부지는 先秦시대 문헌에 등장한 이적들을 秦漢 이후의 유목민족(즉 塞外의 족속)과 구분하고 있다. 또한 先秦시대의 유적들은 秦漢 이후 邊郡의 설치에 의해 중국의 판도와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왕부지는 이들의 규모가 邊郡 지역의 수용 역량을 초과하게 되면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Kim, 2005; Kim, 2002; Zheng, 2007), 반대로 변군 지역의 규모가 거주민의 수보다 지나치게 넓으면 통치의 효율이 낮아지고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백성들이 流民으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이들 유민들은 더 이상 戎狄이나 夷狄이 아니며, 따라서 한족과 동일하게 郡縣을 설치해주고 用夏變夷의 교화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

尊儀(사천), 平越(귀주)에 군현을 설치하자 播州(귀주 존의시)는 禍를 진압하여 안정되었다. 天柱(귀주성 동남), 嘉禾(호남 남부), 新田(호남 남부)에 군현을 설치하자 武(산서), 靖(호남성 묘족자치), 郴(湖南성 동남부), 桂(광서 계림)의 寇賊들이 사라졌다. 그런즉 階(섬서), 文(감숙), 秦, 徽, 英, 六, 隨, 黃, 漢, 雒, 淮浦, 夔, 鄖 등 지역에 郡縣을 설치하여 사람들을 그 끝자락으로 이주시키고, 땅을 광활하게 취하게 하며, 그 田疇(논밭의 경계)를 구분시키고, 그 자제들을 거두어 가르치며, 그 정서를 안정되게 하고, 그들의 뜻을 도달하게 하여, 농민들에게 恒産이 있게 하고, 선비들에게는 恒心이 있게 하면, 나라에는 고정된 부세가 있을 것이다. 한 때 힘이 들고 비용이 든다하더라도 천년을 이롭고 흥하게 할 것이다. 큰 실천이 있을 군주와 재상은 백성들을 좌우하고, 천지를 마름질하며, 중화로서 이적을 변화시켜(用夏變夷) 백성을 개도하고 지역을 안정시킨다면 經世의 큰 계획이 아니겠는가? 어찌 강구하지 않겠는가?(Wang, DTJL, 2011: 437)

여기에서 英, 六 지역이란 왕부지가 『춘추』에 등장하는 안휘성 일대에 거주하는 융적 가운데 하나라고 지목한 群舒를 가리킨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포함한 변방지역에 일련의 민생안정과 교화정책을 실시하고 농민들에게는 경제적 안정을 주는 한편 사대부들에게는 정신적 안정을 주면 나라는 고정된 부세를 확보하게 되고 변방지역의 백성들이 개도되어 그 지역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왕부지의 논리이다.

왕부지는 先秦시대 융적이 교화되어 한화된 또 다른 사례로 복건성과 광동성을 거론하고 있다.

八閩, 東越은 옛날(선진시대)에도 황폐하고 누추한 지역이었으나 守丞의 선발을 중시하여 현명하고 재능 있는 관리가(賢才)가 가서 다스리자 지금은 이미 文教의 지역으로 교화되었다. 어찌 유독 崑(광서)·桂(계림)·滇(운남)·黔(귀주)·階(감숙)·文(감숙)·邛(사천)·雅(사천) 지역만이 善한 지역으로 만들 수 없겠는가?(Wang, DTJL, 2011: 793)

북진성과 광동성에 살고 있는 先秦시대의 종족들이 중국의 유능한 관리의 통치로 인해 文教지역으로 교화된 것처럼, 광서·계림·운남·귀주·감숙·사천 등 소수종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변방지역 역시 군현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여 다스리게 된다면 中華로 교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先秦시대 이적이었던 苗族의 교화 문제에 대해서도 왕부지는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

『논어』에서 “왕이 이적을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苗夷 부락의 우두머리는 그 땅에서 스스로 君主가 된 사람으로 모두 그들의 사람들을 인도하여 고성을 지르며 포악하고 음탕하여 학대를 일삼았고, 禽獸에 깊이 빠져들어 수탈하고 빼앗고 주살하여 그들 사이에 親疎가 없었으니 仁한 사람이 진실로 참을 수 없었다. 그런즉 그들의 우두머리를 주살하고 그들의 땅을 평정하여 나라에서 부세를 받았고, 그들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어 의관을 입히고 그들을 점차 연마시켜, 詩·書·禮·樂의 혜택을 일어나게 하였다. 이에 忠孝·廉節·文章·政事의 분야에서 좋은 인재를 화합의 기운을 타고 성장한 것은 어찌 仁으로 天下를 다스리는 사람의 큰 소원이 아니겠는가? 中夏가 夷狄을 다스려야 하나 九州의 밖에서 실천할 수 없는 것은 天(하늘의 뜻)이다. 그것이 九州 안에서 실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人(사람의 뜻)이다 (Wang, SL, 2011: 174~175).

苗族은 先秦시대의 이민족이나 그들은 공간적으로 중국의 범주인

九州안에 거주하기 때문에 中夏의 통치자가 夷狄 즉 묘족을 다스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논어』에 나오는 “천자는 이적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한다면 그들의 통치는 포악하고 학대를 일삼아 스스로 도탄에 빠지게 되므로 이들을 통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적의 군주를 주살하여 평정하고, 苗族에게 부세를 거두고, 그들에게 詩·書·禮·樂 등 유가교육으로 교화시키며, 忠孝·廉節·文章·政事에 능통한 漢化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仁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의 큰 소원이라는 논리이다(Saitou, 1990: 164).¹⁴⁾

5. 맺음말

본고는 왕부지가 사용한 塞內·塞外·九州·中區·中國 등의 용어가 가리키는 구체적 공간적 범주를 검토하여 그가 바라본 공간으로서의 중국인식, 그리고 공간적 중국 범주 내에 속한 夷狄들에 대한 漢化·敎化 정책 주장을 짚어보았다.

연구결과 漢代부터 명말청초에 이르기까지의 한족 지식인들에게 있어 中國·華夏·九州로 표현되는 공간으로서의 중국은 화이관의 중요한 척도로 작용했음을 확인하였다. 그 공간적 범주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북쪽의 경계선은 만리장성과 일치하고, 남쪽의 경계선은 광둥성과 광서성, 서쪽의 경계선은 섬서성과 감숙성의 서쪽지역과 근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왕부지는 공간으로서의 중국이라는 범주를 이전시기의 누구보다

14) 사이토는 왕부지가 호남성 출신으로 청조의 추적을 피해온 瑤族 사이에 경험이 있어 중국내 소수 민족에 친밀감을 보였다고 하고 있다. 사이토가 제시한 이유보다는, 왕부지의 華夷관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이적과 용적을 先秦시대의 秦漢이후라는 시간적 구분에 원칙을 따랐다고 보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다. 즉 瑤族·苗族은 先秦시대의 이적으로 秦漢이후 흉노·거란·여진·몽고와 다르게, 이들을 중국의 행정구역으로 포함시키고 통치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가장 선명하게 인식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황서』에서 사용한 中區라는 개념은 九州·塞內·中國이라는 용어라든지 江統이 徙戎論에서 중국의 공간범주를 언급한 것보다 동서남북의 경계선이 되는 지역·하천·산 등 지형지물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거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화와 이적의 공간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풍속과 종족 등의 차이점을 동서남북의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는 점은 왕부지만이 가지는 독특한 견해이다.

한편, 왕부지는 공간으로서의 중국 안에 거주했던 先秦시대의 이적들에 대해서는 秦漢이후의 중국 주변 종족들에 대해 적대적·배타적 입장을 표명한 것과 다르게 포용정책을 주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용정책의 대상은 先秦시대에는 夷狄으로 분류되었으나 秦漢 이후 공간으로서의 중국 범주 내에 거주한 종족들로 예컨대 秦·楚와 『春秋』에 등장하는 赤白狄·淮夷·戎蠻·陸渾·姜戎·島夷 등 종족, 그리고 苗族과 獠族 등이 포함된다. 왕부지는 이들 종족들을 詩·書·禮·樂 등 유가교육으로 교화시켜, 忠孝·廉節·文章·政事에 능통한 漢化된 인재를 양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왕부지의 공간으로서의 중국인식은 근대적인 민족국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물론 그가 말하는 공간으로서의 중국이란 근대의 영토주권과 같이 고정불변의 공간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그런 차원에서 전근대적인 견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왕부지가 ‘만세의 夷狄’을 규정한 점, 예컨대 木突·선우·남흉노·갈족·저족·선비족·突厥·奚·契丹·고려·거란족·여진족·西夏·몽고족을 夷狄으로 보는 시각은 청말 시기에 장태염·유사배·손중산·왕정위 등 혁명과 인사들의 민족주의 사상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왕부지가 규정한 九州·中國·塞內·中區 등의 용어로 규정한 동서남북의 공간적 경계선은 청말 혁명파의 근대적 영토범주와도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왕부지가 표명한 공간으로서의 중국 인식은 근대적 영토관념과도 일정부분 연관성 내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 Bibliography ■

1) Primary Sources

- Wang, Fuzhi 王夫之(2011). *Du Tong jian lun*, 讀通鑒論(*A Reading of A Comprehensive Mirror for Aid in Government*), Chuanshan Quanj(Vol.10) 船山全書(10冊)(Chuanshan Complete Collections(Vol.10), Yuelu Shushe 嶽麓書社.
- Wang, Fuzhi 王夫之(2011). *Chun qiu jia shuo* 春秋家說(*My Father's Doctrine on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Chuanshan Quanj (Vol.5) 船山全書(5冊), Yuelu Shushe 嶽麓書社.
- Wang, Fuzhi 王夫之(2011). *Chunqiu Bai Shu*, 春秋稗疏(*Fragmentary Commentary on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Chuanshan Quanj (Vol.5) 船山全書(5冊), Yuelu Shushe 嶽麓書社.
- Wang, Fuzhi 王夫之(2011). *Chunqiu shilun*, 春秋世論(*A general treatise on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Chuanshan Quanj (Vol.5) 船山全書(5冊), Yuelu Shushe 嶽麓書社.
- Wang, Fuzhi 王夫之(2011). *Song lun*, 宋論(*On Song History*), Chuanshan Quanj (Vol.11) 『船山全書』(11冊), Yuelu Shushe 嶽麓書社.
- Sima Qian 司馬遷(2009). *shiji* 史記(*Records of the Grand Historian*), Zhonghua Shuku 中華書局.
- BanGu 班固(1964). *Hanshu* 漢書(*History of the Former Han Dynasty*), Zhonghua Shuku 中華書局.
- Fan Ye 范曄(1964). *HouHanshu* 後漢書(*History of the Later Han Dynasty*), Zhonghua Shuku 中華書局.
- Yuan Hong 袁宏(1987). *HouHanji* 後漢紀(*Annals of the Later Han Dynasty*), Tianjin Guji Chubanshe, 天津古蹟出版社.
- Fang Xuanling 房玄齡(1974). *jin shu* 晉書(*the history of the Jin Dynasty*), Zhonghua

Shuku 中華書局.

Du You 杜佑(1982). *TongDian 通典(Comprehensive Statutes)*, Zhonghua Shuku 中華書局.

Zheng Qiao 鄭樵(1987). *TongZhi 通志(General Treatises)*, Zhonghua Shuku 中華書局.

Ma daunlin 馬端臨, *Wenxian Tongkao 文獻通考(Comprehensive Examination of Literature)*, Wuyindian Quzhenban 武英殿聚珍版.

Wang Qinruo 王欽若(1860). *Cefu yuangui 『冊府元龜(Premier tortoise in the storehouse of books)*, Zhonghua Shuku 中華書局.

Yue Shi 樂史(2007). *Taiping Huanyu Ji 太平寰宇記(Universal Geography of the Taiping Era)*, Zhonghua Shuku 中華書局.

Sima Guang 司馬光(1976). *Zizhi Tongjian 『自治通鑑』(A Comprehensive Mirror for Aid in Government)*, Zhonghua Shuku 中華書局.

MingTaizu ShiRok 明太祖實錄(*Veritable Records of the Ming Taizu*)(1962). Taiwan Zhong yang yanjiu yuan Lishi yanjiu suo 臺灣中央研究院歷史研究所.

Huang Zongxi 黃宗羲(1985). *Huang-Zongxi Quanji(Vol.11) 黃宗羲全集(第11冊)*, (*Huang-Zongxi Complete Works(Vol.11)*), Zhejiang Guji Chubanshe 浙江古籍出版社.

2)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ademy Papers

korean papers

Kim, K. h.(2002). Propagation of Confucian Ideology in Remote Regions and Significance Thereof during the Han (漢) Period. *Journal of Chinese historical researches*, Vol.17, 35~67.

_____ (2005). Principle and Nature of Peripheral Control during the Han Dynasty. *Journal of Asian Historical Studies*, Vol.91, 27~60.

Sim, h. W.(1999-a). Wang, Fuzhi's views of china-babarians. *Theology and*

- Mission*, Vol.3, 147~213.
- _____ (1999-b). *A study of the Anti-Manchu Han scholars Han-yi Guan in the early Qing China*. Beijing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_____ (2004). Attempt to analysis uzhi's views of china-babarians. *A collection of essays on the Ming and Qing dynasties*, Vol.5, 374~398.
- Lee, C. B.(2009). A study on discourses which besieged the concept of chinese modern Nation in late Qing. *Journal of Chung-Ang Historical Studies*, No.29, 131~174.
- _____ (2012). Manchu-centered ethnic policies and cultural conflicts during the Qing period. *Multi-Cultural Contents Studies*, Vol.12, 225~256.
- _____ (2013-a). Hua-Yi thoughts in early Qing period and Amalgamation of Qing dynasty Manchus and Han. *Multi-Cultural Contents Studies*, Vol.14, 301~339.
- _____ (2013-b). Wang, Fuzhi's Sino-Ethnocentrism, and Duplicity on population migration. *Journal of Chung-Ang Historical Studies*, No.37, 191~250.
- Jeong, M.(2007). Nanzhong(南中) and Nanren(南人): emergence of those concept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Big family(大姓) at Yunnan region in Han (漢)-dynasty, *Journal of Chinese historical researches*, Vol.49, 115~150.
- Cho, Y. L.(1992). The new discovery Two kinds of Huang-Zongxi(黄宗羲)'s works and it's national thought problems. *Journal of Asian Historical Studies*, Vol.39, 145~166.
-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2012). *experts forum On Chronic The Great Wall of China*.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Park, B. S.(2011). *Study on dynasties Replacement in ancient Chinese*, GUji Daxue Chubanshe.

Chinese papers

- Qu Lindong 瞿林東(2005). Traditional of historical identities in Chinese history. *HeBei Xuekan(HeBei Academy journal)*, 3th issue, 71~74.
- Xu Tailai 徐泰來(1984). Chuanshan is a patriot. *Quanshan Xuebao(Academy journal)*, 2th issue, 56~58.
- Xiao Minru 蕭敏如(2008). Qingchu Yimin Chunchuxue zhong de minzu yishi(Adherent's national consciousness in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studies in Early Qing Dynasty). *Taipeidaxue zhongwen Xuebao(Taipei university Chinese Academy journal)*, 193~232.
- Wang Gaoxin 汪高鑫(2008). Xironglun de HuaYi zhi bian(Distinction of Hua Yi on Migration Theory). *Lishi wenxian yanjiu(Historical Documents Studies)*, Vol.27, 161~168.
- Wang Yanjia 王彥嘉(2012). *Cong xironrlun kan hetong yijia de zhongyaoxing(From "Migration Theory" to see the importance of unite as Family)*, (Heirongjiangshizhi) Vol.266, 9~11.
- Zhao Lianwen 趙連穩(2006). *LungHuang Zhong-xi fanqingsixiagn de yanbian(The Analysis of the Transition of Huang Zhong-xi's Anti-Qing Dynasty Thoughts)*, Journal of hebei university, 32~36.

Japanese paper

- Saitou tadasi 齊藤禎(1990). 王夫之の華夷思想について(Study on Wang Fuzhi's Hua Yi thoughts), *Yamaguji daigaku bungaku kaisi(Yamaguji university literary journal)*, Vol.41, 155~174.

English papers

Stephen R. Platt.(2004). *Hunanese Nationalism and the Revival of Wang Fuzhi, 1839-1923*, Yale University.

Mingran Tan.(2010). *Crisis and Hermeneutics: Wang Fuzhi's Interpretation of Confucian Classics in a Time of Radical Change from Ming to Qing Dynasty*, University of Toronto.

■ 국문소록 ■

본고는 왕부지가 사용한 塞內·塞外·九州·中區·中國 등의 용어를 구체적 지명·지형이라는 공간적 범주를 검토하여, 王이 인식하고 있는 공간적 범주로서 중국인식, 그리고 공간적 중국범주 속 夷狄에 대한 漢化·教化정책에 대한 그의 주장을 짚어보았다.

연구결과 漢代부터 명말청초에 이르기까지의 한족 지식인들에게 있어 中國·華夏·九州로 표현되는 공간으로서의 중국은 화이관의 중요한 척도로 작용했음을 확인하였다. 그 공간적 범주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북쪽의 경계선은 만리장성과 일치하고, 남쪽의 경계선은 광둥성과 광서성, 서쪽의 경계선은 섬서성과 감숙성의 서쪽지역과 근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왕부지는 공간으로서의 중국이라는 범주를 이전시기의 누구보다 가장 선명하게 인식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황서』에서 사용한 中區라는 개념은 九州·塞內·中國이라는 용어라든지 江統이 徙戎論에서 중국의 공간범주를 언급한 것보다 동서남북의 경계선이 되는 지역·하천·산 등 지형지물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거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화와 이적의 공간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풍속과 종족 등의 차이점을 동서남북의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는 점은 왕부지만이 가지는 독특한 견해이다.

한편, 왕부지는 공간으로서의 중국 안에 거주했던 先秦시대의 이적들에 대해서는 秦漢이후의 중국 주변 종족들에 대해 적대적·배타적 입장을 표명한 것과 다르게 포용정책을 주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용정책의 대상은 先秦시대에는 夷狄으로 분류되었으나 秦漢 이후 공간으로서의 중국 범주 내에 거주한 종족들로 예컨대 秦·楚와 『春秋』에 등장하는 赤白狄·淮夷·戎蠻·陸渾·姜戎·島夷 등 종족, 그리고 苗族과 獠族 등이 포함된다. 왕부지는 이들 종족들을 詩·書·禮·樂 등 유가교육으로 교화시켜, 忠孝·廉節·文章·政事에 능통한 漢化된 인재를 양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주제어: 王夫之, 徙戎論, 空間으로 中國범주, 種族, 夷狄, 教化, 漢化

논문투고일: 2014.02.20

논문심사일: 2014.02.20-03.15

논문게재일: 2014.04.11

